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 SCRIPTORY

로마서 22 주차 (롬 7:18-8:8)

(2016년 1월 28일 - 2018년 2월 3일)

(제5권 22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sup>T</sup>ORY** 제5 권 – 제22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8 년 1 월 28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sup>th</sup>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http://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내 안에는 선이 없다 (주일)

### 오늘의 본문 (롬 7:18~19)

<sup>18</sup> Οἶδα γὰρ (왜나하면 나는 안다)

ὅτι οὐκ οἰκεῖ ἐν ἐμοί,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τοῦτ' ἔστιν ἐν τῇ σαρκί μου, (즉, 내 육신 안에)

ἀγαθόν· (선한 것이)

τὸ γὰρ θέλω παράκειται μοι, (왜나하면 나에게 원함이 실재하고 있는데)

τὸ δὲ κατεργάζεσθαι τὸ καλὸν οὐ· (그러나 선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고 있다)

<sup>19</sup> οὐ γὰρ ὁ θέλω ποιῶ ἀγαθόν, (왜나하면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있고)

ἀλλ' ὁ οὐ θέλω κακὸν τοῦτο πράσσω.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수행하고 있다)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2016 년 하반기부터 2017 년 상반기까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역사상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시민들의 집단 반정부 시위를 경험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부정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왔다.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명이 촛불을 들고 시위했는데 통계에 따르면 그 수가 연인원 1700 만명에 달했다고 한다. 촛불 집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결과를 이끌어 냈고 헌법재판소는 여덟 명 전원일치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로써 정의가 실현되었고 그릇된 길로 나가고 있던 나라가 드디어 올바른 길로 들어섰다고 기뻐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시민들 중에는 촛불의 반대편에 선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촛불 대신 태극기를 들고 나와 맞불 집회를 열었다. 그들 중 일부는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일부는 비록 잘못은 했지만 파면까지 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동일한 사안을 놓고도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스펙트럼이 판이하게 달랐다. 이처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도 사안마다 판단 기준이 각기 다르다. 실없는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만약 하나님이 이 일을 판단하신다면 그분은 촛불 편에 섰을까 아니면 태극기 편에 섰을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이며,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일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다. 가나안의 일곱 족속도 분명 사람이니 그들을 죽이는 건 엄연한 살인이다. 솔직히 아기들까지 죽여야 할 정도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특별히 더 잘못된 것도 없다. 게다가 이스라엘과 그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간 지 400 년도 훨씬 지난 시점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아무런 근거도 없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은 과연 정당한가? 정말 선하고 거룩한 명령인가?

이런 의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다. 이야기의 결과는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이처럼 사후에 그들의 운명이 갈린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입을 빌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눅 17:25). 성경은 부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부를 조성했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나사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가 왜 거지로 살아야 했으며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결과만 보고 함부로 부자를 욕하거나 반대로 나사로만 두둔하는 것

은 옳지 않다. 당시의 신명기적 세계관으로 보면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고 거지 나사로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도리어 이 세상의 부자들이 악인이고 거지는 의인일 확률이 높다. 도대체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일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사실 이 말씀대로라면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행위다. 물론 선을 향한 자기 열심은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상상해 보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십계명을 충실히 지킨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세상에서 모든 우상은 사라질 것이다. 안식일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건물마다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고, 노인 문제는 일시에 해결될 것이다. 살인 사건도 사라질 것이고 재산을 침해 당하는 일도 없고 간음도 없을 것이다. 만약 세상이 그렇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과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성경 말씀처럼 십자가의 효력만이 인간들을 의롭게 하는데 유효하다면 인간들이 행한 의로운 행위, 거룩한 행위들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이러한 질문을 염두에 두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함은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누차 말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하며 마음내키는 대로 산 사람이 아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선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러한 삶은 자기의 의를 드러나게 했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다. 그렇다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마음대로 사는 것도 당연히 죄기 때문이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기 안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는 진정한 의로움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 행함으로 의롭게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명령은 복음이 아니다. 그것은 저주고 속박이다. 사도 바울이 밝혔듯이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 (롬 3: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내게 다가와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고 명령한다. 율법은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그 요구를 충족시킬 능력은 내게 없다. 그것이 ‘나의 한계다.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다.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만 매달리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 만드신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힘써 자기 의에 집착하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내재적으로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는 DNA 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방해하고 있다.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 바울은 실제로 자신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대해 이렇게 한탄했다. 로마서 10 장 1 절-4 절을 읽어보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sup>2</sup>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sup>3</sup>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sup>4</sup>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롬 10:1-4).

당신은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가? 혹여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거지 나사로나 죄인 세리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는가? 적어도 나는 그들과 다르다며 은근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은 쉬워보이지만 사실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다.

###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선과 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행동이 의롭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과 의를 판단하고 있나요? 그 기준은 절대적입니까?

## 죄가 나를 조종한다 (월요일)

### 오늘의 본문 (롬 7:20~23)

- <sup>20</sup> εἰ δὲ ὃ οὐ θέλω [ἐγὼ] τοῦτο ποιῶ,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한다면)  
οὐκέτι ἐγὼ κατεργάζομαι αὐτὸ (더 이상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ἀλλ' ἢ οἰκοῦσα ἐν ἐμοὶ ἁμαρτία.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다)
- <sup>21</sup> εὕρισκω ἄρα τὸν νόμον, (나는 법을 발견했다)  
τῷ θέλοντι ἐμοὶ ποιεῖν τὸ καλόν,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안에)  
ὅτι ἐμοὶ τὸ κακὸν παράκειται· (내 안에 악이 존재한다)
- <sup>22</sup> συνήδομαι γὰρ τῷ νόμῳ τοῦ θεοῦ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κατὰ τὸν ἔσω ἄνθρωπον, (내 속사람을 통해서)
- <sup>23</sup> βλέπω δὲ ἕτερον νόμον ἐν τοῖς μέλεσίν μου (나는 내 지체 안에 있는 다른 법을 목도하고 있다)  
ἀντιστρατευόμενον τῷ νόμῳ τοῦ νοός μου (나의 생각의 법에 대항하여 맞서는)  
καὶ αἰχμαλωτίζοντά με (나를 사로잡는다)  
ἐν τῷ νόμῳ τῆς ἁμαρτίας (죄의 법 안에서)  
τῷ ὄντι ἐν τοῖς μέλεσίν μου. (나의 지체 가운데 존재하는)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한다면” 이 문장은 절대로 가정법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 그것을 행하고 있는 데 대한 유감을 나타내는 말이다. 다시 말해 ‘유감스럽게도 나 바울은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는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다.’라는 말이다. 바울은 자신과 죄를 분리함으로써 행위의 결과에 따르는 책임을 면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나’로 대변되는 인간들은 제 아무리 노력해도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누구나 죄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기에 죄가 원하는 결과만 만들어 낼 뿐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다. 죄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런 바울의 통찰은 인간들이 일반적 통념으로 여기는 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 죄는 단지 공동체에서 정한 어떤 룰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다. 죄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실체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여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 살도록 인간을 조종하고 있다.

‘나’로 소개된 인간은 지금 죄라는 고약한 힘에 사로잡혀서 움짱달짝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율법을 알기 전에는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율법이 오자마자 자신의 본모습이 드러났다. 율법은 ‘나’라는 인간이 죄라는 존재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려 주었고 그것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알려 주었다. 죄에 사로잡힌 존재는 무엇을 하든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행위를 바탕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격 유무를 판단한다면,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죄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 명되는 사람들을 말한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같은 사실에 반기를 들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가? 이 질문은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다. 이렇게 질문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타종교인이나 무신론자들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사는가? 목사가 일반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가? 개신교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그렇다고 말할 자신이 없다. 개신교 신자가 타종교인들보다 더 도덕적이라 말할 수도 없고, 성직자들이 평신도들보다 더 의롭다고 말할 수도 없다.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살펴 보자.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에 관한 지식이 뛰어났다. 그리고 그들은 배운 지식을 삶에 그대로 적용하려 했다. 선불리 그들이 위선적이었다고 비난하지 말기 바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은 누구나 위선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받은 비난은 오늘날의 소위 성직자들에게도 그대로 유효하다. 여하튼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 어떻게든 부정하게 되는 상황은 피했고, 어쩔 수 없이 또는 부지불식간에 그런 상황에 노출되면 즉시로 스스로를 정결케 했다. 그들의 일상 은 항상 율법대로였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의의 기준으로 삼았을 정도니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 5: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데 앞장섰다. 그들이 제멋대로 살아서가 아니다. 그들이 그토록 신성시하는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예수님이 서슴지 않고 하셨기 때문이다. 사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상당 부분이 당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관습이나 법에 어긋났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으로 그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비취졌다. 바울도 그러한 환경에서 율법 교육을 받아 바리새인이 되었고 그 누구보다 철저한 종교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려 했던 유대주의였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겐 그 유대주의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장애물임을 알았다. 유대주의는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거룩한 율법을 변질시켜 오히려 사람들을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 원흉이 되었다. 이와는 달리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언급했듯이 성문화된 율법 대신 양심이 율법 구실을 한다. 그래서 그 양심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의로 나가려는 ‘나’를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동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과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것은 죄의 힘 때문이다. 누구나 살면서 실수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더러는 고의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렸다. 그 문제를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은 아니다. 각자의 실수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죄는 우리가 복음 안에 머무는 것을 용납하지 못해 끊임없이 자신의 의에 매달리도록 유혹한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능력도 커지게 된다.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 묵상을 위한 질문

죄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죄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결과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것이 다른 이들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 그리스도인의 실존 (화요일)

### 오늘의 본문 (롬 7:24~25)

- <sup>24</sup> Ταλαίπωρος ἐγὼ ἄνθρωπος;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τίς με ρύσεται ἐκ τοῦ σώματος τοῦ θανάτου τούτου;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구출해 낼 것인가?)
- <sup>25</sup> χάρις δὲ τῷ θεῷ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다)  
διὰ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Ἄρα οὖν (그러므로)  
αὐτὸς ἐγὼ τῷ μὲν νοί̄ δουλεύω νόμῳ θεοῦ (내가 사실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있다)  
τῇ δὲ σαρκὶ νόμῳ ἁμαρτίας.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다.)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나’로 대별되는 인간의 실존을 ‘비참’(탈라이포로스: Ταλαίπωρος)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간.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 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나의 모습이다. 죄의 포로가 되어 죄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면서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도 당연히 자기가 한 의로운 행위로 자신을 판단할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이다. 그렇기에 그토록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무런 효력도 없음을 깨달을 때 인간은 깊은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인간들이란 누구나 다 그렇다. 의식주에 아무 문제가 없고 평탄한 삶을 살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 인간들은 절대로 그런 상황을 비참한 상태로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상황을 비참한 상태라고 말한다. 신약 성경을 보면 ‘비참’(탈라이 포로스: Ταλαίπωρος)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sup>47</sup>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sup>18</sup>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인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계 3:17-18).

초대 교회 당시 라오디게아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부유했다. 지정학적인 장점을 살려 무역이 발달했고, 염색과 직조 기술이 발달하여 상업이 활발했다. 또한 유황 성분이 풍부한 온천물을 이용하여 안약을 제조하는 등 의약 산업도 발달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 도시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실제로 A.D. 60년대 초에 지진으로 소아시아 지역 도시들이 극심한 지진 피해를 입었을 때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라오디게아는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복구를 완료했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행복이 신의 축복이라 여겼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세계관도 세상 여느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이 누린 풍요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만 의존하게 하는 믿음으로부터 멀게 했던 것이다. 그들은 실제로 부자였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다. 부요하다는 말이 곧 방탕한 삶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문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자신들의 부요한 상황에서 찾았다는 점이다. 예수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다. 첫째, 그들은 곤고한(‘비참’(탈라이 포로스: Ταλαίπωρος)) 사람들이었다. 또한 그들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으며, 벌거벗은 존재들이었다. 예수님은 그들이 축복이라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전혀 반대의 본질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외견상 그들은 축복받은 자들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들은 너무도 비참하고 불행한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부를 축복의 증거로 삼았으나 실

제로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존재였다. 그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 마치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이 빈털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 바로 거지 나사로와 대비되는 그 부자처럼 말이다. 그들은 안약 제조 공장이 있을 정도로 눈 건강에 신경을 썼던 사람들이지만 정작 그들은 눈먼 자들이었다. 직조공장과 염색공장이 있어 화려한 옷을 만들어 냈지만 정작 그들의 실체는 벌거벗은 상태였다.

‘비참’ (탈라이 포로스: *Taláiporos*)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누구보다 거룩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실존은 부정하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의로울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움은 지푸라기 같은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것이다. 세상에서의 명예, 부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것이 ‘비참’ (탈라이 포로스: *Taláiporos*)이다.

바울은 자신이 ‘비참’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보다는 내면에서 자신을 포로 삼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왜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자신을 포장하려 하는가? 바울은 그 원인을 자신 안에 존재하는 죄에서 찾았다. 자신의 육신이 죄의 숙주이기 때문에 숙주인 육신이 죽지 않으면 죄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실존적 한계가 그를 괴롭혔다.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육신의 육망을 죽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매일매일 영성 훈련을 하고 큐티를 한다 해도 육신은 결코 죽지 않는다. 죽기는커녕 오히려 그 육신이 매일매일 자기 의를 쌓아가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육신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도저히 없는 것인가? 바울은 7 장 25 절에서 반전을 시도한다. 그는 말한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죄 아래서 종노릇하던 우리가 드디어 그 어둠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출구를 찾게 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육신은 인간 스스로 죽일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죽게 된다. 육신이 죽으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생명을 얻게 된다. 바울은 깊은 고뇌와 생각을 통해 결국 자신은 죄에 관한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 바울은 자기 육신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자신이 섬기던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임으로서 진정한 해방을 경험한다. 당신은 어떤가? 아직도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고 그것을 갈고 닦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뿐 아니라 그것으로 타인들에게 칭찬 받으려 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바울의 말처럼 당신은 비참한 존재다. 그리스도 안으로 탈출한 사람만이 참 자유의 의미를 안다. 자유는 체험한 사람만이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 자유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누림이기 때문이다.

## 묵상을 위한 질문

인간은 비참한 존재라는 바울의 생각에 동의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당신이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그리스도인의 실존 (수요일)

### 오늘의 본문 (롬 8:1~2)

<sup>1</sup> Οὐδὲν ἄρα νῦν κατάκριμα (그러므로 지금 어떤 정죄가 없다)

τοῖς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sup>2</sup> ὁ γὰρ νόμος τοῦ πνεύματος τῆς ζωῆς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ἠλευθέρωσέν σε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당신을 해방했다)

ἀπὸ τοῦ νόμου τῆς ἁμαρτίας καὶ τοῦ θανάτου.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죄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당신을 해방했다.”

성경 말씀 중 가장 위대한 선언을 꼽으라면 개인적으로는 로마서 8 장 1 절과 2 절을 꼽고 싶다. ‘오우덴 카타 크리마’ (Οὐδὲν ἄρα νῦν κατάκριμα)! 단 하나의 정죄도 없다는 말이다. 살아가다 보면 고의든 실수든 사람들은 죄에 노출된다. 타인들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도덕적 질타를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법의 심판대에 서기도 한다. 어떨 땐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 세상사가 그렇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다. 유명한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또는 금전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나중에 알려져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많다. 그럴 때면 수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손가락질을 한다. 대놓고 그러지 않을 뿐 우리들도 마음 속으로는 수없이 사람들을 정죄한다. 그런데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문제다. 인간들끼리는 저마다의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정작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율법 앞에 완전한 사람이어서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정죄도 없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 온 여인의 이야기는 이 선언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화다. 한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다. 일련의 남자들이 간음 현장을 덮쳤을 것이다. 함께 간음을 저지른 남자는 간신히 도망을 갔는지 아니면 일부러 풀어 주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자만 붙잡혀 왔다. 장정들에게 붙잡혀 온 여인은 성전 마당에 내동댕이쳐졌다. 때마침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고 그들은 여자를 끌고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다. 그때 그들 중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외쳤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간음죄로 정죄했다. 그녀는 실제로 간음을 했고 현장에서 잡혔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녀를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중죄인으로 선언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따랐다. 그녀가 다른 누구도 아닌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녀가 예수님께로 끌려 가지 않고 모세 율법으로 무장된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 갔더라면 그녀는 간음죄인으로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 치욕스런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 것이다. 물론 그녀가 예수님께로 끌려 온 건 이 일로 예수님을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려는 유대 종교 지

도사들의 알뜰한 꼼수 때문이었지만 그녀로서는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 일로 그녀는 평생 경험하지 못할 놀라운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분명 죄를 지었다. 간음은 율법에서도 사형에 해당되는 중대한 죄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율법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죄인인 그녀를 그리스도께 인도했다는 사실이다. 솔직히 그녀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설령 간음을 했어도 율법에서 그것을 사형죄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우악스런 남자들의 손에 끌려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리가 없다. 결국 율법이 그녀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셈이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율법은 범죄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정죄하는 기능을 한다. 많은 사람들은 사형죄가 있으면 살인과 같은 끔찍한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법이 범죄를 예방하는 선한 기능을 할 거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다 알다시피 법이 있어도 반인륜적인 범죄는 끊이지 않는다. 이처럼 법은 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죄지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린 유대인들은 제대로 범집행을 한 셈이다.

이제 예수님 차례다. 예수님 앞에 가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정죄도 없다. 정죄가 없다고 해서 심판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가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한다는 말에는 그 죄인이 저지른 죄를 자신이 대신 받겠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용서는 무책임한 용서가 아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시켜 주신 용서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피 대신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대신 받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소식인가? 하지만 이 사실을 마냥 기뻐할 수 만은 없다. 우리 대신 심판을 받은 분이 있고, 우리가 용서받은 대신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른 분이 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다.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자기 아들을 통해 받으셨다. 결국 하나님이 스스로를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천국의 소망도 갖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함께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할 의무를 부여받았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도리다.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 무력한 인간과 하나님의 은혜 (목요일)

### 오늘의 본문 (롬 8:3~4)

- <sup>3</sup> Τὸ γὰρ ἀδύνατον τοῦ νόμου (왜냐하면 율법으로 인한 무력함 때문에)  
ἐν ᾧ ἠσθένει διὰ τῆς σαρκός, (그것에 의해 육신을 통해 무력해졌다)  
ὁ θεὸς τὸν ἑαυτοῦ υἱὸν πέμψας ἐν ὁμοιώματι σαρκὸς ἁμαρτίας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아들을 죄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  
καὶ περὶ ἁμαρτίας (죄에 대하여)  
κατέκρινεν τὴν ἁμαρτίαν (그 죄를 정죄했다)  
ἐν τῇ σαρκί, (육신에 있는)
- <sup>4</sup> ἵνα τὸ δικαίωμα τοῦ νόμου πληρωθῇ (율법의 요구가 성취된다)  
ἐν ἡμῖν (우리 안에)  
τοῖς μὴ κατὰ σάρκα περιπατοῦσιν (육신을 따라 걷지 않는 자들인)  
ἀλλὰ κατὰ πνεῦμα. (영을 따라 [걷고 있는])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지켜내려고 애쓰는 것도 죄고, 고의든 아니든 율법을 어기는 것도 죄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금식 기도도 빠짐없이 했고 안식일도 철저히 지켰으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 그런데 갑자기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와서는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위선적이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인간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위선적이다. 오늘날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 우리가 과연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욕할 자격이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다. 그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율법과 동떨어져 있는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 잘 생각해 보라. 그들은 살인이나 간음은 물론이고 세리처럼 토색질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며 공동체에서 불의나 부정을 없애는 데 일조했다. 이 정도면 가히 천국 시민이라 부를만 하지 않는가?

하지만 이들과는 달리 매순간 죄를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알량한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토색하는 세리들도 있고 욕정을 이기지 못해 외간 남자와 놀이난 여인도 있다. 만약 그 여인이 법의 수호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히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그런 짓을 하고 다녔을 지 알 수도 없다. 물론 그녀가 간음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보장도 없다. 그 뿐인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먹고 살기 위해 자기 몸까지 팔아가며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던 창녀들도 있었다. 이들 모두는 이유 불문하고 명백하게 율법에서 벗어난 행위를 했고, 당연히 그들은 죄인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바울의 말에 따르면 율법의 의로는 티끌만한 흠조차 찾을 수 없는 바리새인들도 죄인이고 밥 먹듯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죄인이다. 특히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경중을 따질 수도 없는 동일한 죄다. 죄인은 누구나 예외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죄인이고 율법을 어겨도 죄인이라면 율법은 더 이상 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율법은 인간 내면에 열정(헬라이어로는 에피두미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줄 뿐 아니라 그 열정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다. 그렇기 때

문에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는 수단이 아니다. 율법은 우리 모두가 육신에 갇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줄 뿐이다.

이 사실을 바울은 4 절에서 ‘율법으로 인한 무력감’으로 표현했다. 율법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우리가 죄의 속주인 육신 안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죄로부터 헤어나올 도리가 없다. 인간은 율법으로 인해 자신이 육신을 통해 무력화 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 한글 성경은 ‘연약이라 번역했는데 사실 연약한 상태가 아니라 아예 힘이 없는 무력한 상태가 더 정확한 번역이다. 인간이 육신에 갇혀 죄의 조종을 받는 이상 인간은 눈썹만큼도 선을 행할 수 없다. 구원을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이다. 육신에 갇혀 죄의 조종을 받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보내 인간의 실존을 깨닫도록 하셨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율법을 도리어 죄의 탈출구로 여겼다. 하나님이 죄로부터 탈출하라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착각한 것이다.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지 확인해 보라고 거울을 주었더니 거울 속 더러운 자기 얼굴만 닦는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꼴이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인간의 정체를 폭로하셨다. 인간들이 깨닫고 시인해야 하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육신 안에 기생하고 있는 죄를 정죄하셔야만 했다. 죄가 죽어야 인간이 산다. 죄가 사는 한 인간은 죽은 존재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율법의 요구를 모두 성취해야 한다. 인간은 무력함으로 인해 율법의 요구를 단 하나도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선 것이다. 바로 그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렇다면 율법이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의로움과 거룩함이다. 하지만 어떤 인간도 그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인간이 무력하여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에 다다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자신 뿐이다.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가 의요 거룩이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인간들은 완전한 거룩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구원은 단지 우리가 세상에서 지은 죄를 없던 것으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과의 연합이라는 엄청난 차원으로까지 나아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죄의 모양은 물론 그 뿌리까지 예수님께 전가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음으로써 그 죄를 처리하셨다. 그 순간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 역시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이다. 이렇게 죄와 육신의 열정이 처리된 대신 다른 한 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거룩이 우리들에게 전가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영으로 부활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되었다. 우리 모두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존재다. 자신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 받는 사람들이 된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다.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라는 걸 인정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어떤 영향을 주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주신 구원은 어떤 것인가요?

##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고정된 생각 (1) (금요일)

### 오늘의 본문 (롬 8:5~8)

- <sup>5</sup> οἱ γὰρ κατὰ σάρκα ὄντες (육신을 따라 존재하는 자는)  
τὰ τῆς σαρκὸς φρονοῦσιν,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취한다)  
οἱ δὲ κατὰ πνεῦμα (그러나 영을 따라 [존재하는 자는])  
τὰ τοῦ πνεύματος, (영으로부터 나온 그것을 취한다)
- <sup>6</sup> τὸ γὰρ φρόνημα τῆς σαρκὸς θάνατος, (왜냐하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고정된 생각은 사망이다)  
τὸ δὲ φρόνημα τοῦ πνεύματος ζωὴ καὶ εἰρήνη· (그러나 영으로부터 나오는 고정된 생각은 생명이고 평화다)
- <sup>7</sup> διότι τὸ φρόνημα τῆς σαρκὸς ἔχθρα εἰς θεόν, (왜냐하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고정된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τῷ γὰρ νόμῳ τοῦ θεοῦ οὐκ ὑποτάσσεται, (하나님의 법에 굴복되어 있지 않고)  
οὐδὲ γὰρ δύναται· (또한 굴복될 수도 없다)
- <sup>8</sup> οἱ δὲ ἐν σαρκὶ ὄντες θεῷ ἀρέσκει οὐ δύναται. (그러나 육신에 존재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능히 기쁨이 되지 못한다)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육신을 따라 존재하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취하고, 영을 따라 존재하는 자는 영으로부터 나온 것을 취한다. 육신은 무엇이고 육신이 만들어 내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만연한 죄들을 육신이 만들어 낸 열매라고 생각한다. 물론 옳은 말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육신이 만들어내는 전부다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 선한 것이라 해도 인간이 그것을 통해 자신의 옳음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보상받으려 한다면 그것 또한 육신이 만들어 내는 죄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까봐 약간 걱정이 들기도 한다.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솔직히 누가 선을 행하려 하겠는가? 인간은 능히 선을 행할 수 있고, 그 행한 선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 받기 원한다. 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노력의 댓가를 상으로 보상해 주면 열심히 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긴다. 이러한 것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언젠가 어떤 부부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얘기하다가 늘 그렇듯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 이야기가 흘러가기 시작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천들이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배운 정도로만 도덕을 지킨다면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해질 거라고 말했다. 이미 성숙하고, 사리 판단 능력도 있고, 많은 일들을 경험한 성인들에게 목사가 삶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칸트의 정언 명령처럼 인간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동시에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도록 행동하면 된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타인과 나 모두가 유익한 쪽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말이다. 그러면 웬만한 죄는 사라지고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된다. 함께 교제를 나누던 분은 그래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이다. 필자도 그분이 하려는 얘기가 무엇인지 안다. 실제로 대부분의 주일 강단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얘기들로 넘쳐나고 있다.

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앨버인시에 산다. 앨버인에서 도로 하나만 건너면 북쪽에 산타애나시가 있다. 산타애나시는 가난한 라틴계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미국에서 가장 치안이 불안한 도시 중 하나다. 잘 알다시피

얼바인 시는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의 하나로 손꼽힌다. 치안은 물론이고 교육,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도시 중 하나다. 그래서 그런지 얼바인에는 소위 한인 대형 교회들이 많다. 물론 산타에나에도 한인 교회가 있긴 하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교인들 중 산타에나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은 거의 없다고 한다. 그냥 건물만 산타에나에 있을 뿐이다. 한인 교회들은 여느 한국 교회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해외 봉사 활동을 한다. 주로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이 주된 사역 대상이다. 매년 여름이면 의료진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교인들이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해외로 나간다. 단기 선교를 위해 바자회도 열고 펀드레이징도 한다. 주로 멕시코 등 경제적으로 빈곤한 남미 지역을 돕기 위해서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바로 이웃 산타에나에 살고 있는 가난한 라틴계 사람들을 돌보는 데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돕기는커녕 그곳은 위험하니 될 수 있는 한 그쪽으로는 가지도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왜 그럴까? 곁에 있는 자기 이웃은 돌보지 않으면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 앞다퉈 타국으로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인간이라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을 맹자는 수오지심(羞惡之心)이라 했다.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선한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말이다. 당연한 말이다. 내 이웃이 헐벗고 있는데 그를 외면하고 돌보지 않았다면 응당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마음으로부터 선한 요구가 있으면 그 선한 요구에 순응해야 한다. 단지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래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도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선한 동기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의로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로 들고 나가서는 안 된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삶을 산 것만 자랑하는 것이 죄다. 이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강조하신 말씀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sup>2</sup>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sup>3</sup>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sup>4</sup>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마 6:14).

진정으로 선한 행위는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 하지만 요즘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왼손은 물론이고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온갖 힘을 쏟아붓고 있다. 봉사 활동도 묵묵히 하면 될 일이지 사진까지 찍고 SNS에 올리며 세상을 향해 나팔을 불어댄다. 바울이 말했듯 육신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먹고 산다. 세상에서 영광을 얻어야 직성이 풀린다.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향성이다. 누차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선을 행하되 생색내지 말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획득하려 하지 말라는 것이다. 어차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근거로 자신의 신앙을 입증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육신의 자랑인가?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선한 행동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것으로 남들에게 칭찬 받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고정된 생각 (2) (토요일)

### 오늘의 본문 (롬 8:5~8)

- <sup>5</sup> οἱ γὰρ κατὰ σάρκα ὄντες (육신을 따라 존재하는 자는)  
τὰ τῆς σαρκὸς φρονοῦσιν,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취한다)  
οἱ δὲ κατὰ πνεῦμα (그러나 영을 따라 [존재하는 자는])  
τὰ τοῦ πνεύματος, (영으로부터 나온 그것을 취한다)
- <sup>6</sup> τὸ γὰρ φρόνημα τῆς σαρκὸς θάνατος, (왜냐하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고정된 생각은 사망이다)  
τὸ δὲ φρόνημα τοῦ πνεύματος ζῶη καὶ εἰρήνη· (그러나 영으로부터 나오는 고정된 생각은 생명이고 평화다)
- <sup>7</sup> διότι τὸ φρόνημα τῆς σαρκὸς ἔχθρα εἰς θεόν, (왜냐하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고정된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τῷ γὰρ νόμῳ τοῦ θεοῦ οὐκ ὑποτάσσεται, (하나님의 법에 굴복되어 있지 않고)  
οὐδὲ γὰρ δύναται· (또한 굴복될 수도 없다)
- <sup>8</sup> οἱ δὲ ἐν σαρκὶ ὄντες θεῷ ἀρέσκει οὐ δύναται. (그러나 육신에 존재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능히 기쁨이 되지 못한다)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최근 미국이든 한국이든 동성애 문제로 인해 교계에 바람 잘 날이 없다. 미국 연방법원이 동성혼을 합법화한 이후 동성애 문제는 기독교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었다. 어떤 기독교인은 동성애자들에게 결혼 계약을 팔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거액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동성혼 지지자들을 차별했다는 게 이유다. 이런 저런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기독교인들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용기있는 행동을 칭찬하며, 주일 강단에서는 동성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실 동성애 문제는 최근 불거져 나온 이슈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 하고 있다.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성경에 따르면 동성애는 분명 죄다. 간음이나 도둑질도 죄고, 끼리끼리 모여 누군가를 화제에 올려 가십하는 것도 죄다.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분을 내는 것도 죄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모두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죄와 정죄는 다르다는 것이다. 설령 누군가가 성경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만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를 정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인간이 창조된 이래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심판의 자리를 양보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너무도 쉽게 타인의 행동을 정죄하고 나선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말이다.

이처럼 자신을 정죄하여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도, 남을 정죄하여 타인들을 비난하는 것도 모두 육신의 일이다. 육신의 일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의 결과를 선악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의 결국은 사망이다. 바울은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고정된 생각을 죄라고 말한다.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하건 그것은 육신에 기반하고 있기에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 여기서 고정된 생각으로 번역한 ‘프로네마’(φρόνημα)는 ‘생각의 틀’을 의미한다. 마치 주물성형을 만들 때 쓰이는 틀처럼 무엇을 찍어내든 동일하게 생긴 것이 나온다는 말이다. 육신이라는 틀이 만들어 내는 생각은 모두가 사망에 이르는 것 뿐이다.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의 틀이란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 인간의 내면에 자리잡은 선악 판단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옳고 그름, 선과 악, 좋고 나쁨, 깨끗함과 더러움을 판단하는 기준과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나 육신은 기회를 타 그것을 마치 인간의 것으로 착각하고 각자의 생각대로 판단하여 정죄하도록 한다. 동성애는 당연히 죄지만 그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권

한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을 인간들에게 주지 않은 것과 동일한 이치다. 성경에 따르면 간음은 분명한 죄이지만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고정된 생각은 늘 사망이다. 어떠한 예외도 없다. 육신이 만들어내는 것은 그 자체로 사망이다. 문제는 인간의 눈에 비친 선한 행위의 열매들이 보기에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 사람을 가치롭게 보이게 할 정도로 매력적이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뱀(참고로 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지혜’를 뜻하는 ‘나하스’다.)의 유혹을 받은 하와의 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렇게 보였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창 3:6).

육신을 단지 악하고 추하며 더러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겐 육신의 열매는 추하고 불성 사납고 무지몽매한 것들일 것이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육신은 이런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들어 낸 의와 거룩을 제외한 모든 것을 육신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들의 율법 지킴도, 에센파 사람들의 청렴하고 거룩한 삶도, 사두개인들의 권력 지향적인 삶도, 열심당원의 세상적 정의 실현도 모두가 육신의 열매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육에 대한 기준은 대단히 명쾌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고 인간이 만들어 낸 모든 것은 육적인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힘과 능력에 기대어 만들어 낸 모든 것은 육신적이다. 솔직히 인간의 육신적 자원으로 만들어 낸 것을 영적이라 주장할 수는 없지 않은가?

결국 인간이 육신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스스로에겐 없는 셈이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에 고통을 가해서라도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떻게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 대안이 막연할 뿐이다. 이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뿐이다. 그러려면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낸 그럴듯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만 한다. 인간의 열심이 불우한 이웃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인류 평화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가 행한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로 삼거나 그것으로 남들에게 자신을 인정받고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선하고 옳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를 자랑거리로 삼아 떠벌리지 말라는 말이다. 선하게 한 행동은 그 자체로 족하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성령의 열매인양 자랑스럽게 여기며 스스로에게 훈장을 수여하지 말길 바란다. 사실 이런 육신적 열매를 버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찌면 고통스러울 지도 모른다. 다른 이들의 칭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가? 한 번 생각해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는지를...

## 목상을 위한 질문

어떤 것이 육신의 일이라 생각되니까?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나요?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방해할까요? 당신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